광주일보 7

광주 중앙공원, 풍암호수 품은 명품공원으로 거듭난다

세계적 주요 도시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도심 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영국 런던에는 랜드마크인 '하이드 파크'가 있 다. 영국식 정원을 대표하는 도심 공원으로 런던 시 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미국 뉴욕의 명물인 센트럴 파크는 런던 하이드 파크를 롤 모델로 삼았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인 스웨 덴 스톡홀름에는 로얄 내셔널 파크가 있다. 사슴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뛰어 다니고, 시민들은 승마는 물론 피크닉과 산책 등 휴식을 즐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만 해도,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도쿄 중 심부에 히비야 공원이 있다.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오픈 콘서트 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사시사철 다양한 꽃과 푸른 나무들이 장관을 이룬다.

이 외에도 프랑스 파리의 룩셈부르크 가든, 호주 멜버른의 로얄 보타닉 가든 등 세계인이 꼭 한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에는 어김 없이 그 도시를 대 표하는 공원이 있다.

국내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을 비롯한 경기 파주시 운정호수공원, 인천 청라호수·송도중 앙공원, 세종시 세종호수 공원 등 해당 도시를 대표 하는 도심 공원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구 150만명에 육박하는 호남 대표 도시 광주는 세계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내 에서도 내놓을 만한 도심 공원 조차 없는 게 현실이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서야 민간 소유 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세계적인 명품 공원을 조성 하겠다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심 곳곳에 총 9개의 대표 공원을 조성하는 민 간공원 특례사업의 핵심은 단연 풍암 저수지를 안 고 있는 중앙공원이다. 중앙공원 부지는 광주 전체 민간 공원의 40%나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여서, 지 역 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심 민간공원 9곳 713만7000㎡ 2024년까지 시민휴식지로 재탄생 중앙공원, 전체면적의 40% 차지 캠핑장·공연장·수상카페 등 조성

"한 평이라도 더" 광주시의 노력 공원 보존율 90%대…전국 최고 업체 초과수익 환수 조항도 마련

◇국내를 넘어 세계 대표하는 명품 공원 조성=광 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중앙 공원 등 9개 도시공원(10개 사업지)으로, 전체 부 지 면적만 789만 8000㎡에 이른다. 이 중 90.4%인 713만 7000㎡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 품으 로 돌아온다. 공원조성 비용은 민간 업체에서 아파 트 등을 짓고 남은 이윤으로 충당하며,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은 76만 1000㎡로 9.6%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은 공원 공사비 3123억원, 토 지보상비 1조 2588억원 등 총 1조 5711억원이 투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9개 도시공원 중 핵심은 중앙공원으로, 광주 도심의 중심축인 서 구 금호동, 쌍촌동, 풍암동, 화정동 등을 두루 걸치 고 있다. 부지면적만 302만8000여㎡ (1지구 243만 5000㎡, 2지구 59만3000㎡)에 이르며, 광주 전체 민간공원의 40% 안팎을 차지한다.

개발 업체들은 기존 도심 허파기능 확대와 함께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90%가 넘 는 공간에 다양한 휴식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나머 지 8% 공간에는 도심 속 공원으로 둘러싸인 친환 경 명품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그 이익금 중 상당액 이 공원조성 사업비로 투입된다.

아파트 개발면적을 뺀 공원 91.8% 공간에는 9개 기능을 갖춘 다양한 테마숲이 들어선다. 어울림 숲, 우듬지 숲, 치유의 숲, 청년의 숲, 예향의 숲, 가 족의 숲, 활력의 숲, 기록의 숲, 공원 중심 풍암호수 조성 등 9개 기능을 갖춘 숲으로 세분화하고 상호 연결하는 구조다.

또 각 기능별로 모험시설 등을 갖춘 캠핑장과 놀 이터, 물놀이장, 도시텃밭, 야외 공연장, 공방, 카 페, 식물정원, 풍욕장, 문화마당, 생태연못, 체험 온실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 수준의 시



광주 민간공원의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공원이 풍암저수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한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답다. 여름철이면 악취를 풍기던 풍암저수지는 오는 2024년까지 문화 · 편의시설을 갖춘 맑은 물이 가득 찬 명품 호수공원으로 거듭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민 중심 공원시설이 들어선다.

그동안 여름 시즌 등이면 악취 민원에 시달렸던 공원 내 농어촌공사 소유 풍암저수지도 매입을 통 해 시민 휴식지로 거듭난다. 개발업체측은 바닥 성 토 작업 등을 거쳐 야간경관시설, 반딧불 수상카 페, 수상 시민 전시관 등을 갖춘 호수공원으로 조성

◇광주시, 타 자치단체 압도하는 공원면적 확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들이 공원일몰제 시효 종료 대상인 공원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 으로부터 사들인 뒤,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공간에 비공원 시설(아파트)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광주시는 법적으로 전체 공원면적의 30%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지만,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평균 9%대의 면적만 아파트 부지로 허용했

이를 통해 광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공원면적 확보 비율(91%)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 다. 전국 자치단체의 민간공원 면적 확보 비율은 평 균 80%이며, 일부는 70%대에 머무르고 있다.

광주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 최초로 민 간업체의 초과 수익을 공원사업 등 공공에 재투자 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 보조금으로 추가 담보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계약을 해놓고 사업 중간 에 자금난 등을 핑계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업 체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등의 조항을 신설 한 것"이라며 "당시엔 (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마 음 고생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전국 자치단체들 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행정 사례로 주목받 고 있다"고 말했다.

◇해묵은 공원 관련 민원도 한번에 해결=광주시 는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국・공유지 및 사유지 669만4000㎡를 매입한 뒤 불법 경작 등 으로 훼손된 100만 3000㎡에 나무를 심고 공원 내 묘지 7961기를 이장해 생태 숲으로 복원한다.

불법 경작지와 중외・송암 공원 내 공동묘지를 포 함해 공원 내 묘지가 있는 지역에 수목을 식재해 생 태 숲으로 복원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시민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로 등으로 단절된 '운암산공원과 영산강' 및 '일곡공원과 중외공원' 등은 각 공원을 연결하는 산 책로 4개소를 신축해 생태 녹지축확대와 공원 이용 객이 편리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다.

시는 이 밖에도 민간공원 관련 장기 민원인 중외 공원 내 송전탑 13기 중 주민주거 생활에 밀접한 10기를 지하로 이설·철거한다.

박금화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도심 공원 곳곳에 시민 을 위한 휴식 명소 구축을 목표로, 사업 진행에 속 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Lifetime Value Creator

